

# 전두환 · 이순자 구속처벌 촉구 남부지역노동자 · 시민 쫓기대회!!



- 일시 : 1988년 8월 20일(토요일) 오후7시  
21일(일요일) 오후3시
- 장소 : 남부지역 - 구로역앞광장  
동부지역 - 어린이대공원앞 공터
- 주최 : 서울민족 민주운동 협의회 준비위



## KSCF 선배회 9월 월례 예배

예배 이끄미: 이광호 간사(KSCF)

반 주: 박세론 간사(EYCK)

장 소: 기독교회관 701호

준비 및 진행: 류순권 역사자료실 간사

침묵 . . . + . . . + . . . + . . . + . . .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 . . + . . . + . . . + . . . 다 같이

류형선 글·곡

♩ = 80

F C7 F Gm B<sup>b</sup>m F/C C7

이 말씀 따 - 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 - 게 하 시고

F A7 Dm B<sup>b</sup>m F/C C7 F

이 말씀 따 - 라 사는 동안 주님 나 라이루소 서 -

출처 : 1997년 KSCF 노래모음집 예수 노래와 다시 살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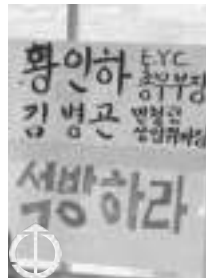
추모의 시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 같이

이끄미: 기독교학생운동을 위해 헌신하시고 돌아가신 분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함께 추모하실 분들은

2004년 9월 3일 소천하신 박혜숙 선배님, 2007년 9월 12일 소천하신 김동완 목사님,

1998년 9월 19일 소천하신 황인하 선배님이십니다.



에큐메니칼 기독교학생운동을 위해 몸바치신 모든 분들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잠시 침묵하겠습니다. (반주: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용서의 선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 같이

**이꿈이 :**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시고,  
이 그리스도를 보시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다같이 : 아멘

자비의 연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 같 이

하느님 아버지, 모든 피조물과 함께 찬미하나이다.

전능하신 성부께서 손수 빚으신 모든 피조물은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현존과 자애로 충만하나다. 찬미받으소서!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 만물이 당신을 통하여 창조되었나이다.

성자께서는 성모 마리아께 잉태되시어 이 땅에 속하셨으며

인간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셨나이다.

성자께서는 오늘도 당신 부활의 영광 안에서 모든 피조물 안에 살아 계시나이다.

찬미받으소서!

성령님, 성령님께서서는 당신의 빛으로 이 세상을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끄시며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피조물과 함께하시나이다.

성령께서는 또한 저희 마음 안에 머무르시며 저희를 선으로 이끄시나이다.

찬미받으소서!

삼위일체이신 주 하느님, 무한한 사랑의 놀라운 공동체를 이루시니

만물이 하느님을 이야기하는 세상의 아름다움 안에서

저희가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가르쳐 주소서.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존재를 통하여 저희에게 찬미와 감사를 일깨워 주소서.

존재하는 모든 것과 친밀한 일치를 느끼도록 저희에게 은총을 내려 주소서.

사랑의 하느님, 이 세상에 저희에게 맞갖은 자리를 보여 주시어

저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위한 하느님 사랑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시는 존재는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권력과 재물을 가진 이들을 깨우치시어 무관심의 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공동선을 사랑하며 약한 이들을 도와주고 저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돌보게 하소서.

가난한 이들과 지구가 부르짖고 있나이다.

주님, 주님의 힘과 빛으로 저희를 붙잡아 주시어

저희가 모든 생명을 보호하며 더 나은 미래를 마련하여

정의와 평화와 사랑과 아름다움의 하느님 나라가 오게 하소서.

참미받으소서! 아멘.

(「찬미받으소서」 2015. 교황 프란치스코 회칙)

이꿈이 : 잠시 침묵하겠습니다. (반주)



영 광 송 . . . + . . . + . . . + . . . + . . . 부름 받아 나선 이 몸 . . . + . . . + . . . + . . . + . . . 다 같 이

이호운 사 이유선 곡

(원제:헌신 찬송)

1. 부름 받 아 나선이 몽 어디 든 거 가오리 다  
2. 아글 골 짝 빈들에 도 복음 들 고 가오리 다  
3. 조귀 영 광 모든것 세 주님 홀 로 받으소 서

괴로 우 나 즐거 우 나 주만 따 라 가오리 니  
소동 같 은 거리 에 도 사랑 안 고 찾아가 서  
멸시 천 대 십자 가 는 제가 지 고 가오리 다

어느 누가 막으 리 까 죽음 인 들 막으 리 까  
종의 몽 에 저넌 것 도 아낌 없 이 드리 리 다  
이름 없 이 빛도 없 이 감사 하 며 섬기 리 다

어느 누가 막으리 까 죽음 인 들 막으리 까  
종의 몽 에 저넌 것 도 아낌 없 이 드리리 다  
이름 없 이 빛도 없 이 감사 하 며 섬기리 다 아 멘

Copyright (C) 이윤희선 . Adm. By KOMCA. All rights reserved. Used by Permission.

[illegible]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이들이 내뿜는 혐오와 차별에 짓눌려

단발의 비명도 지르지 못하는 사람이 우리 곁에 많이 있습니다.

두려움에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에게까지 애써 지워야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다름을 혐오로 갖고, 차이를 차별로 응징하는 이들 때문에

자신을 혐오하고 차별을 내면화한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고통과 외로움, 두려움을 외면치 마시고

고통받는 이들과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혐오와 차별에 노출된 사람들을 위한 기도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봉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 꿈 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  
라인이나 죽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하늘 뜻 나눔 . . . + . . . + . . . + . . . 담벼락을 넘어서는 복음 . . . + . . . + . . . + . . . 이동환 목사

**중 보 기 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 같 이**

**이꿈이 :**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당신께 나아가기에 앞서 먼저 저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내시고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되시어 사셨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시어

지금 저희와 함께 계십니다.

오, 하나님, 당신은 성령이시니 저희에게 힘을 주시어

세상에 기쁜 소식이 되게 하십시오.

화해와 치유의 하나님 죽음을 이기신 분.

당신은 저희의 하나님이니 당신을 경배합니다. (The New Zealand Prayer Book)

다같이 :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꿈이 : 진정한 거룩은 혐오가 아닌 환대입니다.**

한국교회가 혐오와 차별에 앞장서지 않고

사랑과 확대의 길에 길잡이가 될 수 있기를 위하여

교단 재판의 부당함을 사회 재판을 통해 바로 잡기를 바라는

이동환 목사의 길을 주님과 함께 우리도 같이 가기를 원합니다.

다같이 :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꿈이 :** 참혹한 기후재난 앞에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엄숙히 되돌아보며

지진과 홍수로 생명을 잃은 피해자들과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동료들 위에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의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더불어 큰 상처를 입은 채 그곳에 남아 비극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이들에게는

하늘의 깊은 위로와 돌봄 그리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자비하신 품 안에서

하루속히 일상을 회복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로코와 리비아 각 지역에서 발생한 대지진과 대홍수로 큰 피해를 입고 고통 중에 있는 이들에 깊은 위로를 전하는 9개 회원교회 대표 및 총회장 명의의 연대 서신 중에서)

다같이 :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평화의 인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 같 이

이꿈이 : 주님께서 우는 자와 함께 우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다같이 : 앞에 계신 분들의 평화를 빕니다.

이꿈이 : 주님께서 우는 이를 위로하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다같이 : 옆에 계신 분들의 평화를 빕니다.

봉 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 같 이

Words & Music by  
PETER & HANNEKE JACOBS

저 높고 파란 하늘꼭대기 에 가 면

아 나님약 속 가 득 무 지개걸려있 네 빨 주 노

초 파 남 보 하얀 구름위로올 라 가 면

봉헌감사기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 같 이

이꿈이 : 하느님, 저를 사랑으로 내시고 저에게 영혼 육신을 주시어 주님만을 섬기고 사람을  
도우라 하셨나이다. 저는 비록 죄가 많사오나 주님께 받은 몸과 마음을 오롯이 도로  
바쳐 찬미와 봉사의 제물로 드리오니 어여뻐 여기시어 받아 주소서.  
(한국 카톨릭 기도서 중에서)

다같이 : 아멘

소 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 같 이

감사의 기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 같 이

이꿈이 : 오, 주 하나님, 살아계셔서 세상 끝날까지 성령과 함께  
세계기독교학생총연맹 WSCF, 한국기독교학생회총연맹 KSCF의  
학생기독교운동과 이 땅,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여 주소서.

다같이 : 아멘

폐 회 찬 송 ······ 갈릴리로 가요 ······ 다 같 이

주현신, 류형선 주현신

자전모리



1. 갈릴리로 - 어서가요 - 눈물일랑 거두어요 -  
 2. 구비구비 - 고개넘어 - 아리 - 랑고개넘어 -  
 3. 더 단결음 - 힘들어도 - 여럿 - 이함께가요 -

우리에수님 먼저가신 - 갈릴리로함께가요 -  
 억새풀더미 흐드러진 - 갈릴리로함께가요 -  
 우리에수님 발길따라 - 갈릴리로함께가요 -

죽음 - 이기시고 부활하셨네 참 생명을주셨네 -

우리에수님 손 - 맞잡고 기뻐하며노래해요 -

2023년 8월 회계보고

봉헌 : 20만원 (KSCF 선배회 분담금으로 입금)

지출 : ① 박세론 간사님 반주 사례비 5만원 ② 장소 대여비 5만원(NCCK 후원금)

누계 : 125만 2천 700원 | 100만 4천원 (2022년 12월 ~ 2023년 8월) | 잔고 24만 8천 700원